

2025-2026

기윤실 연례보고서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

Christian
Ethics
Movement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 회원총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윤실
후원회원
가입



기윤실
뉴스레터
구독신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 지형은

공동대표 |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이사회 | (부이사장) 권장희 이의용 정병오 조성돈 (이사) 강석창 박종철 권수경 권혁률 김정태 김진수 김홍섭 박제우 배종석 손은실 송인수 신동식 유해신 이상민 이충열 임성빈 장동민 조흥식 최규창 최현범 (감사) 이병주

상임집행위원회 | (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본부장) 이창호 김상덕 정재훈 구자창 우미연 (부설기구장) 노종문 김서로 (자치기구장) 성신형 이재민 (사무처장) 김현아 (상집위원) 김세진 김영식 김은득 박민중 박정우 박혜인 손민정 신하영 윤진영 이성은 홍동우

사무처 | 김현아 윤동혁 이명진 홍천행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장) 손봉호 (자문위원) 강영안 곽상배 라영환 백종국 손인웅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기윤실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부산기윤실 서울기윤실 익산기윤실 인천기윤실 전남기윤실 전주기윤실 정읍기윤실
진주기윤실 청주기윤실 LA기윤실

2025-2026 기윤실 연례보고서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행인 지형은

편집인 정병오

편집 기윤실 사무처

발행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유튜브/SNS @giyunsil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서신

안녕하세요? 2025년은 불법 비상 계엄 이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 가운데 시작했지만 민주적 헌법 절차를 통해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를 통해 국가의 기초를 다시 세운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지만, 일부 선동적인 교계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온갖 거짓과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섬으로 전체 교회가 극우화된 이념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윤실은 혼란의 시대를 비춰주는 균형잡힌 기독교적 관점과 올바른 기독교인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며 과잉 대표되고 있는 극우 기독교와 맞선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격과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기존 회원들이 흔들림 없이 기윤실을 지켜주셨고, 200여 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는 등 건강한 성도들이 기윤실에 힘을 실어주셨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으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하실까?",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검소 절제
나눔의 자발적 불편의 삶을
실천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동행하며 함께 웃고 우는
삶을 실천하며,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쳐온 기윤실 회원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상임공동대표 정병오 올림



2026년 기윤실 회원총회 '환대'와 '안녕'의 자리



2026년 2월 10일(화) 저녁,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2026년
회원총회는 작년에 이은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이라는
표어 아래 여러 임원 및
회원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부: 식사와 교제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진행된
1부 시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회원님들과
섬김이들이 따뜻한 안부를 묻는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손봉호 자문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명예가 실추된 지금 기윤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나의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구하는 '선한 행실'을 당부하시며, 세상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2부: 예배

정재훈 본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손민정

상임집행위원의 대표기도를 통해 작년의 정치적 혼란과
세상의 아픔을 회고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시민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현범 이사는 '십자가의 승리'를 주제로, 세상의 이념이나
전통에 종속되지 않고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로 타락한 사회
구조를 변혁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3부: 회원총회

지형은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회원총회에서는
김현아 사무처장의 보고를 통해 2025년 사역을 돌아보고,
2026년의 새로운 발걸음을 결의했습니다. 올해 기윤실은
'자발적불편운동 연중캠페인', '교회와 여성운동', '이주민
운동', '기후정의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환대와 안녕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임원 개선을 통해 권장희, 손은실, 유해신 이사가 연임하고,
김진수 이사이 신임 이사로 취임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또한 박민중 작가와 박혜인 박사가 신임
상임집행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역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2026년, 기윤실은 여전히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건고자 합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사회
곳곳에 진정한 평화와 안녕이 깃들도록 노력하는 이 걸음에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변화를 위한 행복한 불편 실천

모여서 채식, 흠어져서 채식

자발적불편운동은 <오늘은 채식>이라는 주제로 2025년에 연중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간의 미식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육식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하루나 한끼 채식을 실천하고 독려했습니다.

혼자 실천하기 어려운 채식을 모아서 함께 실천하는 “자발적채식클럽”에는 19명이 참여했습니다.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책을 함께 나눴고, ‘비건페어’도 함께 탐방했습니다. ‘채식 빙고 도전’과 ‘채식 보름 도전’이라는 미션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했는데,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채식파티’에는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천단 외에도 ‘달걀 없이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자’는 내용과 ‘수련회 때 한 끼는 채식으로 꾸리자’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발행했고, 포스터를 발송해 여러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자발적 불편을 위한 레시피

그리고 2025년에는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불편 레시피 30』이 출간됐습니다. 10년 전에 첫 번째 가이드북이 나왔는데, 현재의 상황과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 내용을 전면 개정한 두 번째 책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책은 “기후환경”과 “이웃약자”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27명의 저자가 총 30개의 꼭지를 채워주었습니다. 각 꼭지에 어울리는 필자들을 섭외하고 원고를 모으는 일부터 디자인과 편집, 인쇄에 이르기까지 쉬운 일은 없었지만, 완성된 책을 받아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웃과 자연을 위해 권리와 편리를 양보하는 자발적불편을 실천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멋진 ‘레시피’와 같은 책입니다.

자발적채식클럽에서 진행한 ‘책 나눔과 수다’, ‘비건페어 현장탐방’, ‘채식파티’

2026년에는 <환대하는 교회, 차별 없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연중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평등과 소외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대화과 토론, 그리고 연대

2025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는 시민사회의 한 주체로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비전과 섬김의 현장을 공유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역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고, 교회의 건강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2025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는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고자 협소하고 분절된 기존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시스템별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고령,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집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와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컨퍼런스에서 한국 사회의 돌봄 수요 및 서비스 현황 및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 왜 지금 다시 한국교회에 이웃과 돌봄에 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소외와 고립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마을 안에서 존엄한 돌봄과 현대의 사역을 위해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오며 기독교의 이웃 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현대와 공존의 한국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교회들은 통합돌봄의 허브로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현대 돌봄>

전인적 돌봄과 관계 중심의 서로 돌봄을 지향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약자의 고립, 지역사회 소멸 등 한국 사회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성육신적 선교라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교회성 회복을 바라며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분부는 지난해부터 '교회신뢰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회자 표준 사례비' 문제, 특히 목회자 소득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합동, 통합, 감리교) 관계자들과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고,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와 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은 요원한 상황이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윤실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계층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 사례비 조성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교단에 소속된 중소형교회(출석교인 100명 미만) 책임 목사와 평신도 8명을 모시고, "목회자 표준사례비

목회자 표준사례비 대화모임



대화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목회자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인과 교회, 교단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지나며, 사회는 극심한 갈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중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이러한 모습은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행태가 극단적으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6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극우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12.3계엄 이후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공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대와 실천



한국교회청년과 12.3계엄집담회(위)와 제21대 대선 TPV워크숍(아래)

질문이 있는 교회와 광장을 바라며

12.3 계엄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는 끝없는 혼란과 갈등, 반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역시 각자 소견에 옳은대로 현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뚜렷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운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은 12.3계엄과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 상황을 성찰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집담회에는 30여 명의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마 교회에서 나눌 수 없었던 수많은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며, 공감과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공명한 선거와 올바른 투표 문화

21대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 시민을 위한 행동지침>을 배포해 양극화된 정치갈등을 넘어서는 문화 조성을 도모했고,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용해 위반 우려가 있는 곳에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TPV(Talk Pray Vote)캠페인을 벌여 소책자를 발행하고 워크숍도 진행해 바른 선거 분위기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2026년에도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개최됩니다.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과 TPV 캠페인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치 공론장이 필요한 기독청년을 위한 모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정치이야기 하지마!”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랜 시간 정치 이야기,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권 이슈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기운실은 기독청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소규모 공론장을 기획하였고, 지난 10월부터 총 4주 동안 7명의 청년이 모여 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은 해당 시간동안 차마 교회에서 나눌 수 없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민운동: 낯선 이에서 친구로, 현대의 식탁을 나누다

'250만 이주민 시대, 우리 곁에 다가온 낯선 이웃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기운실 이주민운동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5년, 구조적 이해를 돕는 학습 공동체 이주북클럽(Migration Book Club)을 시작했습니다. 총 2개 시즌으로 나뉘어 진행된 북클럽에서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현실과 다문화 사회 속 한국 교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Migration Book Club
(이주북클럽)

관심 있는 이들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의 토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6년, 이주민운동은 작년부터 진행한 이주북클럽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학생,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밥상을 나누는 '이주민 곁-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음식을 나누는 이 구체적인 우정의 실천을 통해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현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시작을 알린 기후정의운동

2025년 처음 시작한 기후정의운동은 전반기에 기존 단체들과의 연대미팅을 갖고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문제에 관심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보고 읽고 기후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기후정의 영화를 관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이송희일)라는 책을 함께 읽었으며, 산청 민들레 공동체와 창녕 우포늪으로 현장탐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교회와 함께 기후정의를 생각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후현장에 참여하는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권 산불피해 지원

2025년 3월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번졌습니다. 갑작스런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으며, 집과 밭, 학교와 문화재 등이 불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운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과 생필품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 긴급모금을 진행하였고, 총 47개 단체와 158명의 후원자가 74,646,003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해당 금액은 대구 기운실로 전달하여 일손돕기(농번기 일손, 모듈주택 청소 등), 의료/의약품 지원, 생필품 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야배송”을 둘러싼 성찰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독교 집담회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심야시간 배송 제한안이 공개된 뒤, 소비자, 언론, 정치권에 논쟁이 번졌습니다. 기운실은 영등포산업선교회와 함께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12월 11일 기독교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벽배송, 클렌징 제도, 비정규직 활용, 공직자 출신 인사영입, 미국 상장 및 대표의 책임 회피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쿠팡은 아직까지도 개선의 노력이 없고,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이윤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책임과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사고의 재발을 막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 공동선의 관점에서 대안적 실천을 고민하며 삶의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의 편리함이 이웃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를, 기업은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곁을 내어주고, 새로운 내일을 잇다

2025년 기윤실 청년운동본부는 파편화된 청년들의 삶을 잇고, 그들의 목소리가 교회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장과 연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청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25년, 함께 걷고 깊이 질문하다

청년운동본부의 든든한 구심점인 청년위원회는 정기모임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청년활동가 광주기행'은 단체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 시민단체 청년 및 활동가 13명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18 민주묘지 등 사적지를 탐방하며 서로 깊이 교제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을 연결하는 소모임인 '잇슈ON'은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기행'은 사전모임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고, 현장 기행을 통해 광주항쟁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하며 역사적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입체적인 성찰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즌 3, 4로 이어진 '교가삼순(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의 순모임)'은 제도권 교회 밖 청년들에게 상처를 나누고 건강한 신앙을 모색할 수 있는 안전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광주기행(위)과
웨이브레터 독자모임인 웨이브살롱(아래)



새롭게 시도된 '크리스천 육아하는 아빠'는 청년 운동의 주제를 생애주기별 필요로 확장하여, 돌봄 연대와 새로운 남성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청년을 위한 뉴스레터 '월간 WAYVE'는 올해부터 월 1회 발행으로 개편되어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짜지구 전쟁, 기후위기, ESG 등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기독교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분투하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담아내며 건강한 담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2026년, 더 깊은 확대와 춤추는 연결을 향해

2026년 청년운동본부는 기존 활동의 깊이를 더하고, 지역 교회가 청년 복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다리를 놓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지역 교회를 위해 '청년브릿지: 청년 복지 실행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주거 지원, 식사 나눔 등 청년 지원을 훌륭하게 수행 중인 교회와 단체들을 현장 탐방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간 WAYVE'는 독자와의 접점을 다변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심층 콘텐츠 중심의 'Deep WAYVE'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Light WAYVE' 투트랙 방식을 시범 운영하며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따로 또 같이, 하나님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자치기구/기독교윤리연구소

요즘 한국교회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환대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는 해당 문제를 반성하고, 한국 교회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공감과 환대'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성과는 2026년에 단행본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가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치기구/사회복지위원회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기도운동을 전개하며 나라와 민족, 파송 선교사,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교회상을 준비하고,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자문 및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기윤실 교사모임

기윤실 교사모임은 감사노트 제작 및 말 걸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실천 운동 개발 및 보급, 온/오프라인에 활용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대협력

하나님나라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사회선교단체 및 활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고 또 흩어지며, 따로 또 같이 움직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 서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어그러진 사회의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며 투쟁의 목소리를 더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참회를 촉구하며 개혁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윤실은 사회선교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모여 마음을 잇대며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2025년 연대협력 활동

- 성서한국
-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기윤실&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모임
- 장신대 목회자후보생 교회밖 현장실천
- 4.16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연대
- 쿠팡 택배노동자故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성탄절 연합예배
- 그리스도인 연합 시국기도회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
- 팔레스타인 연대
- (사)토브협회
- 고 뚜안 님을 추모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회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기후대선을 위한 기자회견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긴급 기자회견



크리스찬아카데미와 함께한 대화모임



세종호텔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거리기도회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상담사 슈퍼비전

2025년, 5년의 동행과 더 단단해진 마음의 안전기지

2025년은 청년상담센터 WITH와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를 아우르는 '청년센터 WAY'가 설립 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두 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재무적 위기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입체적으로 살피고,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깊이 있게 모색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성탄절 집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마음이 추운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활동과 더불어, 취업난과 대인관계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일대일 개인 상담을 제공하며 변함없이 든든한 마음의 안전기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내담자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공동소장님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상담사 워크숍과 슈퍼비전, 동료슈퍼비전을 꾸준히 운영하며 애쓰시는 상담사님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깊이 다졌습니다.

2026년, 변함없는 동행과 내실 있는 성장을 향하여

청년상담센터 WITH는 청년들에게 변함없이 곁을 내어주려 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1:1 심리상담, 고민 주제에 대해 교육과 나눔을 제공하는 '위드클래스(독서모임 및 마음 특강)'를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최선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상담사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련(슈퍼비전, 워크숍 등)을 꾸준히 이어가며, 흔들리는 청년들의 안전한 울타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

좌절에서 희망으로

2025년, 16명의 청년이 윙즈를 통해 재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윙즈의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전보다 적은 수의 청년을 만났지만 만남의 깊이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내담자의 후기 중 일부입니다. "별이가 겨우 생활임금수준이라 미래를 위한 축적이 어려워서, 노후나 결혼, 집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 좌절감이 들었는데, 재무상담을 통해 조금은 희망감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돈으로 이어지는 게 여실히 보였다. 나의 살아있음과 돈의 연결됨이 무겁게 와 닿는다. 이런 감각이 낯설다."

윙즈의 활동들

더불어 '청년윙즈통장'을 통해 5명의 청년이 건강한 저축과 소비습관 조성에 참여했고, '윙즈클래스'를 통해 바람직한 노후준비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재정목양을 위한 사역자 교육과정'을

교회와 사회를 조망하는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

2018년에 창간한 기윤실 웹진 <좋은나무>는 교회, 사회, 문화, 과학·기술, 성경·신학, 복리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전문인들의 글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구독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1,143개의 글을 발행하였고, 매년 약 50여 명의 신규 필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4,144명, 뉴스레터 1,156명, 뉴스레터 892명, 인스타그램 452명 등 수많은 구독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좋은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검색에 '기윤실 좋은나무'를 입력하시면 양질의 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2025년 상위 조회수 기고 글

- 『새한글성경』을 읽어 보셨나요?_김동혁 11,451
- AI가 밝히는 구약성서 문서설_기민석 2,827
- 한국교회의 극우화_권수경 2,762
- 윤석열 계엄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_백종국 2,748
- 목회자 사례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_신동식 2,318
- 성심당이 축적한 '관계'_김태훈 2,249



온라인(zoom)으로 진행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2025년은 처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윈즈'가 진행되어 원주에 있는 바른길교회 청년들이 재무강의를 듣고 재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의 윈즈도 후원으로 모아주신 마음을 토대 삼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윈즈클래스 <건물주는 아니지만 퇴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사회 운동의 빠르고 바른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복음의 가치에 반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하지 않는 교계 및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성명

지난 7월, 오륜교회 직원의 과로사와 이후 교회가 보인 무책임하고 비정한 태도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면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강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륜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교역자들을 향해 사명과 헌신을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과 존중없는 갑질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오륜교회 직원 과로사를 계기로 드러난 시대착오적 노동 관행을 극복하고 노동법 준수와 동역 의식 확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교단의 총회가 개최되는 9월을 맞아 '2025 교단 총회, 이것만은 꼭 결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단 총회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를 공교회로서 대응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교단 안에서 일어난 신학적, 목회적 사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치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복음에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교단총회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성명

12.3 불법 비상계엄과 그 여파,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기윤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 시민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이고 불의한 행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거스르는 폭력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과 동조자들이 불법 계엄의 마땅한 책임을 지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시민들이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하여 인사 철학과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직 수행의 자질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25 교단 총회
이것만은 꼭 결의해야 합니다**

기윤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및
파면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

기윤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기윤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난 6, 7월 서신을 통해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말에 10.27연합집회 및 12.3비상계엄이라는 교계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시대를 읽는 방식과 정치 참여의 방식이 왜곡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되는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이러한 현실에서 신학적, 역사적, 정치적 담론을 분석하여 제공했고, 기독교 시민들이 성경적 가르침과 사회적 영성을 기반으로 분별력과 책임감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수의 극단적인 목소리가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지 않도록 바른 담론과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내고, 한국 회교의 개혁을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주체로 세우는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운동에 동의하는 분들께서 기윤실의 요청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190여 명의 신규회원 가입과 100여 명의 기존회원 증액은 기윤실 운동의 든든한 동력이 되었고, 섬김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자들을 보듬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함으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실 운동에 함께하려면

▶ 활동과 모임에 참여해주세요.

각종 캠페인, 포럼, 세미나, 기도회 등 다양한 활동과 모임,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곳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 뉴스레터와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기윤실 소식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와 유튜브, 청년의 활동과 시선이 담긴 <웨이브레터>, 교계/사회 이슈를 조망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 정기/일시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후원과 기도는 기윤실 운동의 토양입니다. 934여 명의 개인회원 40여 곳의 교회/단체회원이 기윤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려면

아래 QR코드 링크를 통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기윤실 휴대전화 010-2671-3756으로 문의주세요.

기윤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01-0504-979

우리은행 821-05-002520

하나은행 109-228746-00104

(예금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청년센터WAY 후원계좌

하나은행 105-910021-82204

(예금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후원회원
가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으며 모든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회원총회 의결권을 갖습니다(6개월 이상 정기 후원회원).

▶ 연례보고서, 신간 도서와 기념 선물을 받습니다.

2025년, 기윤실의 수지결산입니다

(단위: 원)

총 수입 347,50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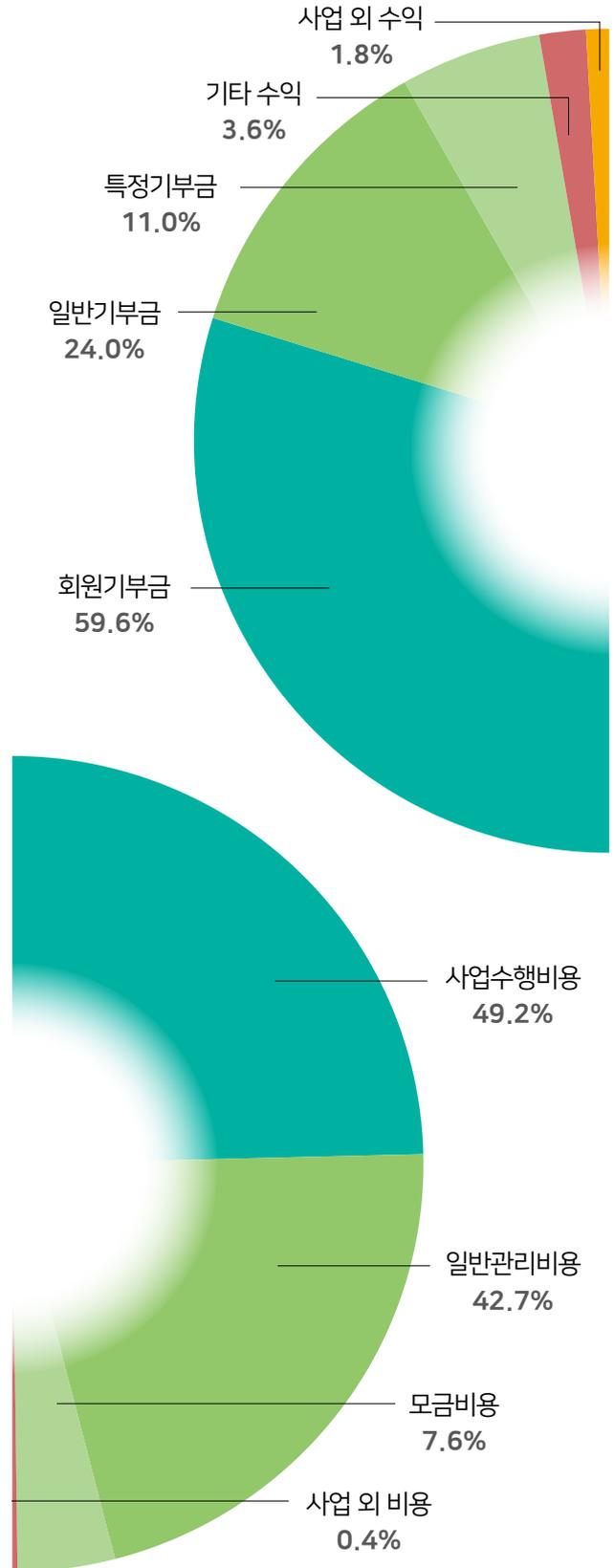
사업 수익	341,294,026
회원기부금(회원, 이사)	207,251,430
일반기부금(교회, 기관)	83,280,000
특정기부금(사업 지정)	38,200,000
기타(등록비, 자료판매비 등)	12,562,596
사업 외 수익	6,208,0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231,482
유형자산처분이익	-
잡이익	4,976,529

총 지출 313,388,865

사업 비용	312,093,142
사업수행비용	154,290,904
일반관리비용	133,872,317
모금비용	23,929,921
사업 외 비용	1,295,7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228,802
유형자산처분손실	65,071
잡손실	1,850

당기순이익 34,113,172

사업행사비 세부 내역	80,212,363
자발적불편운동	6,256,827
교회신뢰운동	4,350,528
좋은사회운동	3,878,212
청년운동	4,852,814
청년센터WAY	19,197,934
좋은나무	29,350,000
자치기구	100,000
연대협력	2,786,700
사무처	9,295,185
이체수수료	144,163



2025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KimHyeChin SONG HEE SOOK 강다별 강미원 강민주 강병관 강병중 강병철 강석창 강승문 강승철 강신일 강신호 강영안 강용균 강용성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은혜 강일구 강정원
강지혜 강진호 강철원a 강철원b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홍구 강희모 강희철 고근욱 고승표 고여진 고영화 고은희 고정환 고향숙 공미자 공지태 공헌 곽석열 곽은이 곽은진 곽종철
구예리 구자창 구진희 권경혜 권광현 권명애 권수경 권아현 권영지 권용승 권용식 권일한 권장환 권창철 권혁를 금은미 기세욱 기세중 기은미 김강석 김경래 김경선 김경숙 김경준
김경천 김경호 김고운 김광한 김규성 김근원 김기남 김기쁨 김기협 김나리 김대식 김대인 김대현 김덕구 김동석 김동욱 김동조 김동철 김동혁 김령희 김리브가 김민욱 김명민 김명하
김문수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영 김미혜 김민석 김민숙 김민아a 김민아b 김민을 김병훈 김봄이 김상규 김상기 김상덕 김상범 김상아 김상순 김상정 김상환 김상희 김서로
김석주 김석환 김선에 김선영a 김선영b 김선욱 김성경 김성기 김성민 김성수 김성에 김성천 김성희 김세진a 김세진b 김세진c 김순경 김순섭 김승호 김신근 김아현 김양석 김연진
김영모 김영식 김영아 김영재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림 김완진 김요열 김용미 김유복 김윤모 김윤수 김윤희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득 김은수 김은영a 김은영b 김은영c
김은이 김은중 김은진 김인목 김인성 김인숙 김자은 김재균 김재석 김재원 김재환 김정기 김정미 김정옥 김정현 김정호 김정훈a 김정훈b 김정훈c 김종필 김종호a 김종호b
김주실a 김주실b 김주혁 김주현 김준봉 김준수a 김준수b 김준영 김준철a 김준철b 김지영 김지은 김진석 김진식 김진일 김진표 김진혁 김진훈 김창호 김창환 김철기 김철석 김철휘
김태섭 김태식 김태환 김태훈 김학빈 김학성 김한기 김한길 김하나 김한중 김현 김현경 김현아 김현태 김형진 김형중 김형태a 김형태b 김혜경a 김혜경b 김혜리 김혜미 김혜일 김홍섭
김홍환 김화영 김활 김효근 김효진 김희경 김희완 김희정 나석진 나영진 나유정 나종주 남궁설 남재환 남재현 남준일 노광섭 노덕권 노미화 노승아 노중문 노정환 노치준 노태권 류선민
류종우 마충렬 맹경순 맹주한 명노현 목광수 문경민 문경환 문규 문덕암 문석윤 문성현 문세진 문용기a 문용기b 문정옥 문지영 문형욱 민영은 민은설 민향숙 박경원 박경춘 박경희
박누리 박동식 박동원 박득훈 박명근 박명규 박명배 박민선 박민우 박사무엘 박상구 박상윤 박상호 박상희 박선영 박선이 박선희 박성일 박성주 박세라 박세진 박소라 박송하 박수경
박수정 박숙영 박시운 박시하 박신아 박신영 박신용 박양훈 박영훈 박용식 박용재 박용하 박원주 박원희 박유진 박은미 박은숙 박은주 박은지 박은혜 박재정 박재장 박재한
박정우 박제민 박재우 박종민 박종배 박종은 박종원 박종진 박종태 박종하 박주현 박준희 박지안 박지연 박진옥 박진호 박찬기 박철 박철원 박춘원 박관근 박해영 박해정 박혜리
박혜린 박혜윤 박효용 박홍래 박환승 반대경 반희주 방현정 배복희 배상실 배윤구 배재수 배정은 배정주 배중석 배진희 백소영 백인남 백중국 백종원 백지열 백현주a 백현주b 범학식
변시은 변현정 변희중 서경원 서계원 서근주 서동진 서동천 서명진 서미경 서성호 서아령 서유미 서은지 서일향 서임선 서정애 서진희 서한홍 서현석 서화진 서효정 석종호 설성호
성기진 성신형 성영은 성우경 성태우 소정원 손병원 손병철 손봉호 손세현 손용기 손은실 손은정 손재아 손정훈 손종국 손주익 손진호 손현석 손현진 손현화 손화철 송명숙 송미경
송병주 송성현 송시섭 송영자 송예원 송원규 송은정 송은진 송인수 송정관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학동 송현석 송형록 신국원 신근범 신대희 신동식 신명호 신소영 신수현 신순이
신승우 신승혁 신언혁 신영재 신영현 신용수 신은아 신은정a 신은정b 신의민 신재은 신전수 신창엽 신창조 신천수 신하영 신현동 신혜영 신효영 신희선 심경자 심혜인 안계영 안광례
안광찬 안보경 안상호 안선욱 안연희 안정은 안지은 안학서 양대성 양리현 양민우 양세진 양영우 양윤정 양익준 양정덕 양지혜 양혁승 양희성 양희환 엄명중 엄태경 엄현식 여경학
여영은 연효정 오동춘 오동훈 오명규 오미영 오병관 오병모 오성만 오세란 오영숙 오윤숙 오은석 오진선 오창섭 오형국 오화선 오환철 옥명호 옥신미 옥성일 온상원 왕보현 용유찬
우미아 우미연 우연주 우한솔 원대환 원영대 원종민 위국명 위유미 위건호 유허상 유훈원 유리안 유명중 유미호 유성민 유성일 유수현 유수지 유영준 유인복 유재균 유정윤 유정인
유지연 유지는 유혜신 유혜은 유혜선 유혜원 윤덕희 윤동혁 윤상혁 윤성모 윤신일 윤언철 윤원철 윤유중 윤인영 윤지원 윤태호 이경아 이고은 이광식 이광표 이교성 이국운 이근현
이금아 이기용 이기일 이동렬 이만열 이명임 이명자 이명진 이명화 이민정 이방욱 이범진 이병호 이병환 이상규 이상돈 이상민 이상용 이상진a 이상진b 이상진c 이상훈a 이상훈b
이상훈c 이석형 이선규 이선애 이선욱 이선화 이선희a 이선희b 이상근 이성은 이성진a 이성진b 이성현 이세령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a 이수진b 이수호 이슬이 이슬희 이슬철 이신형
이영미 이예성 이요한 이용래 이용아 이용은 이용필 이용화 이용훈a 이용훈b 이우상 이운섭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원우 이원중 이월숙 이유리 이유혁 이윤경 이윤낙 이윤승 이윤정
이윤현 이은라 이은성 이은수 이은아 이은영 이은주 이은혜 이의용 이의현 이일영 이장규 이재민 이재열 이재준 이재현 이정나 이정미 이정민 이정아a 이정아b 이정우a 이정우b
이정은 이정일 이정화 이종갑 이종규 이종영 이주창 이주현 이주환 이준복 이지숙 이지욱 이진경 이진수 이찬호 이창열 이창호 이천화 이충렬 이충학 이태휘 이태희 이한나 이현주
이현숙 이형조 이혜진 이호준 이희석 이희한 익명후원자 익명후원자 익명후원자 임경희 임광순 임기수 임미정 임성빈 임소희 임순기 임영우 임영택 임완철 임원식 임은혜 임재민
임재현 임종록 임중화 임지웅 임진수 임태규 자정화 장광익 장기화 장다영 장동민 장병권 장성규 장소람 장우출 장은림 장익현 장인태 장정열 장주미 장준혁 장진우 장창수 장해경
장호철 장희중 전갑용 전개향 전순영 전중갑 전혜정 전현철 전화영 전희욱 정경숙 정경애 정경환 정금영 정기득 정다니엘 정단비 정만식 정명혜 정명환 정문희 정민경 정민호 정병오
정병일 정삼열 정삼복 정세희 정선우 정세열 정수덕 정시은 정열매 정영래 정영미 정영옥 정예훈 정원 정유선 정윤희 정의진 정인수 정인혜 정재환 정재훈a 정재훈b 정주희 정중목
정철모 정태열 정현구 정현철 정현학 정화선 정화조 제행신 조경대 조민상 조병관 조샘 조선향 조성돈 조성실 조승희 조영수 조옥현 조용래 조용환 조인진 조인영 조정대 조정은 조창연
조현영 조형래 조혜진 조홍식 조희규 지교봉 지삼영 지상섭 지은혜 지중배 지현민 지형은 지후석 진미자 차두진 차수민 차종민 차혜란 채영삼 채충원 채홍석 천선희 천수연 최경구
최경숙 최교은솔 최규창 최나현 최대철 최동우 최동주 최동훈 최병성 최병태 최봉순 최상태 최선욱 최성수 최성숙 최순희 최승환 최시은 최영우 최영혜 최용현 최우석 최용권 최원영
최윤경 최윤성 최윤주 최용 최은영 최인석 최인선 최인영 최정철 최정현 최정희 최종선 최종원 최지숙 최지은 최진호 최현범 최현중 최현지 최현철 최혜경 최호윤 추진연 추현우 탁혜경
태원우 하민중 하병수 하용중 하윤영 한관선 한관수 한두섭 한민근 한민순 한병선 한석환 한성준 한성화 한신영 한유경 한유식 한이수 한재량 한정은 한지연 한지희 한현구 한희수
함영림 허남 허시내 허은경 허정란 현영철 홍관수 홍대식 홍선표 홍선희 홍성두 홍성우 홍성재 홍인기 홍일선 홍재경 홍종락 홍준호 홍지희 홍천행 홍택주 홍현영 황병구 황병일 황성기
황은아 황인각 황재민 황재호 황주일 **개인 _ 934명**

2026년 핵심사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6년 표어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합니다.

자발적불편운동 연중캠페인

<환대하는 교회, 차별 없는 일상>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차별과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주제별 격월캠페인을 제시합니다.

교회와 여성운동

'여성도 안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교회 내 경험과 담론들을 나누고, 교계 여성 의제에 대응하며 연대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아 여성의 존엄, 주체성, 대표성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주민운동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과 교회 공동체에서 공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독서모임과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과 만나 관계 맺는 밥상 교제를 통해 환대의 문화, 이주 관련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기후정의운동

기후위기와 기후 부정의 현상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소식을 한국교회에 전달하고, 기후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기후 관련 현장 참여의 장을 제공합니다. 창조세계의 안녕, 기후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안녕을 회복하는데 일조합니다.

청년 브릿지

청년을 환대하는 교회, 일상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청년 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이 탄탄한 교회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사례를 매뉴얼화해 더 많은 교회가 청년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

도서 발간

<공감의 울림으로, 환대의 행동으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기독교의 핵심가치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고 회복해야 할 환대와 공감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회 (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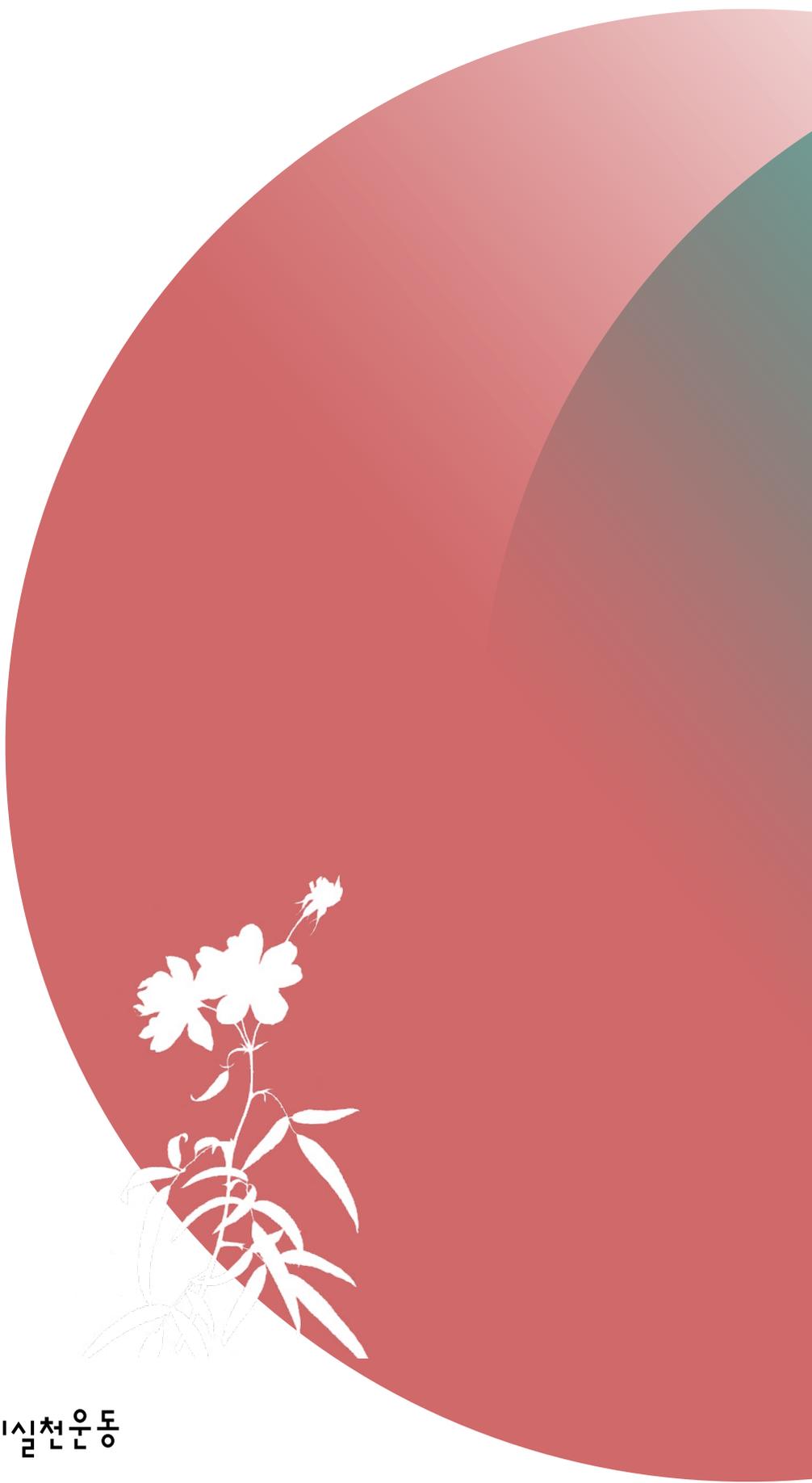
- 기윤실은 2008년부터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한국교회/목회자/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도 제고 방안, 종교별 선호도, 사회적 기여도, 사회 이슈에 대한 한국교회의 태도 등의 문항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추적·점검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연구,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번 8차 조사는 2026년 1월 5일~10일에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10.27연합집회와 12.3비상계엄을 거치며 광장과 정치적 국면에서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고, 교회와 기독교인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8.5%, 한국교회가 대체로/일부 '극우적 성향을 보인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7.1%로, 진보(4.7%)나 극좌(8.3%) 응답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한국교회가 사회윤리적 가치를 형성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윤실은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자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한국 사회의 성숙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교회 극우화 극복을 위한 연속 세미나

- 12.3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한국교회 일각에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와 성경을 왜곡하며 성도들을 선동하는 극우화 양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기윤실은 극우 기독교가 내세우고 있는 용어와 행동 양식들을 신학적·역사적·정치사회학적으로 검토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3/16부터 4/20까지 <국민저항권>, <자유와 평등>, <예언과 선동>, <세속사회와 기독교>, <정교분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등 여섯 가지 주제를 통해 극우 기독교로부터 왜곡되어 확산된 이념과 용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가짜뉴스와 선동의 언어를 근절하며, 한국교회가 무지와 극우화의 물결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운동

- 한국교회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과 사례들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정치 참여 문화를 만들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 TALK PRAY VOTE 캠페인 :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와 선거, 후보와 정책, 한국사회의 당면과제 등에 대해 공동체와 교회,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TALK)하고, 기도(PRAY)하고, 분별력 있게 투표(VOTE)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의 책무를 깊이 고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대화와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